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기초조사 (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기초조사 연구(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2018년 12월

- 용역수행기관 벨류가든
- 연구책임자 위정희, 신은희
- 연구원 안수정, 김숙정
- 워킹그룹 김은정, 공유선, 최은영

목 차

I. 서언

- 1. 연구개요 / 1
- 2. 연구방법과 내용 / 2

II. 동남권 시민사회 현황

- 1. 지역사회 기본현황 / 4
- 2. 지역 시민사회의 양상 / 12
- 3. 선행논의 검토 / 15

III. 활동주체의 현황과 인식

- 1. 조사개요 / 19
- 2. 조사결과 / 20

IV. 공익활동 활성화 의견 수렴

- 1. 포럼개요 / 30
- 2. 1차 포럼: 활동가들의 목소리 / 31
- 3. 2·3차 포럼: 동남권 공익활동의 기억 / 35
- 4. 4차 포럼: 연구중간보고와 활동가 의견수렴 / 39
- 5. 5차 포럼: 사례공유 / 40
- 6. 시사점 / 41

V. 결론 / 44

부록

- 참고문헌 / 50
-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공익활동 기초조사 설문지 / 52
- 지역 공익활동가 1차 포럼 기록 / 56

I. 서언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 동남권—행정구역으로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로 구성되는—에 공익활동 거점 공간조성을 위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서울시 ‘동남권활동가네트워크’가 수행한 기초조사다.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목적은 동남권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수요 및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지역 NPO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표 1-1> 연구의 개요

- 연구과제: 공익활동 거점공간 기초조사(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
- 연구목적
 - 동남권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수요 및 공감대 확인
 - 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지역 NPO 기초 조사
- 연구기간: 2018년 10월~2018년 12월
- 발주기관: 서울시NPO지원센터
- 수행기관: 동남권활동가네트워크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위정희(커뮤니티허브공감)
신은희(벨류가든)
 - 공동연구원: 안수정
김숙정
 - 워킹그룹: 김은정(강남 아아쿨생협)
공유선(송파 퍼스트페이지)
최은영(서초 벨류가든)

서울시 동남권은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익활동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등- 의 기반이 취약해, 공익활동에 이해와 필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공익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동남권의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관련된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동남권 지역 시민

사회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좀 더 깊고 넓은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내용

1) 문헌검토: 동남권 시민사회 현황

동남권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활용된 자료에는 동남권 시민사회 관련 학술적 연구나 기초조사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관련 공공문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다. 문헌검토를 통해 서울 동남권의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과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파악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동남권의 자치구별 생활권에 기반한 현황과 지역사회 시민참여(자원봉사, 기부, 사회단체 참여 등) 및 시민사회단체 기초현황에 관해 살펴봤다. 아울러 동남권 지역 시민사회 관련 선행연구나 조사를 검토했다.

2) 설문조사: 활동주체의 현황과 인식

동남권에 입지한 단체와 기관, 활동가들의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132명의 활동가들이 응답했다. 설문내용에는 응답자 인적사항, 소속 단체 기본현황, 활동가들이 처한 상태, 활동가들의 요구, 소속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및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단체들과 새로이 발굴된 단체들을 포함한 동남권 시민사회단체 목록을 구성해 조사에 활용했다.

3) 활동가포럼: 공익활동 활성화 의견 수렴

동남권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층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형식의 연속 활동가 포럼을 총 5회 차에 걸쳐 진행했다. 1회 차 포럼에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2·3회 차에서는 동남권 지역 시민사회의 역사를 정리해 보고, 최근 새롭게 등장

한 단체와 활동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차 포럼에서는 향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 마지막 5차 포럼에서는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표 1-2> 연구의 추진일정

내용	월 주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설계		●	●	●	●									
섭외(자문, 공론장 등)				●	●	●								
참고자료 조사			●	●	●	●	●							
지역별 자료 조사					●	●	●	●	●					
전문가 자문				●		●						●	●	
워킹그룹/공론장(포럼)						●		●	●	●				
보고서 작성										●	●	●	●	

II. 동남권 시민사회 현황

1. 지역사회 기본현황

1) 동남권¹⁾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공간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에 기반 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의 삶이 녹아든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활권 단위로 구분한다. 서울시는 크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시가지(Bed-town)으로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을 포함하며 서울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동남권은 약 146km²(서울시 면적의 23.9%)의 면적에, 218만명(서울시 인구의 20.6%)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다.

<표 II-1> 서울시 동남권의 기본현황

구분	면적(km ²)	인구(천명)	행정동(개동)	가구수(만가구)
강남구	40	573	22	23.2
강동구	25	501	18	16.4
서초구	47	439	18	16.9
송파구	34	669	27	25.7
계	146	2,182	95	82.2

동남권은 사업체와 종사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체들의 채용도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좋은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비율이 72.2%로(서울시 평균 40.4%)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의 정비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저층 주거밀집지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구조에 있어서는 서울시 대비 젊은 계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 종합해 보면 동남권은 서울시 대비 경제적 조건과 기반시설, 그리고 주거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iy)와 관련한

1)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권역별생활권계획: 동남권(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dstrct_SE.pdf).

여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한다. 동남권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 자치구 22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된다. 동남권의 자치구별 지역생활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서울시 동남권의 지역생활권 현황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생활권	역삼·논현권 삼성권 압구정·청담권 대치·도곡권 개포·일원권 수서·세곡권	천호·성내권 암사권 길동·둔촌권 명일·고덕권 강일·상일권	방배권 양재권 반포권 서초권	가락권 송파권 석촌권 잠실1권 잠실2권 문정권 거여·마천권
개수	6	5	4	7

2) 강남구²⁾

강남구는 2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약 39.5km²(서울시 면적의 6.5%)에 약 58만명(서울시 인구의 5.6%)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구는 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역삼·논현권', '삼성권', '압구정·청담권', '대치·도곡권', '개포·일원권', '수서·세곡권'이 포함된다.

역삼·논현생활권은 역삼1동, 역삼2동, 논현1동, 논현2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업·업무공간과 주거가 공존하는 강남도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강남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거와 상업·업무공간이 혼재해 있으며, 저층저밀 및 고층고밀의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생활권은 삼성1동과 삼성2동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비즈니스 인프라와 양호한 주거지를 갖춘 강남도심의 중심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업무중심기능과 대규모 전·사무시설이 집중돼 있고, 광역 철도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압구정·청담생활권은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으로 구성돼 있고, 한강변에 접한 아파트지구, 다양한 문화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강변에 접한 노후 아파트지구들이 정비시점을 맞이하고 있고, 신사동 가로수·세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패션거리, 한류스타거리 등 대중문화 및 소규모 복합 상업 기반이 발달해 있다.

2)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 강남구(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area_23.pdf).

대치·도곡생활권은 도곡1·2동, 대치1·2·4동으로 구성돼 있고, 도심에 인접하고 교육이 특화된 주거중심의 생활권으로 인식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와 테헤란로 이면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강남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생활권으로 강남도심의 배후주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곡공원, 탄천, 양재천 등의 자연환경과 삼성로변 대치동 학원가가 이 지역의 특색을 형성하고 있다.

개포·일원생활권은 개포1·2·4동, 일원1·2동으로 구성돼 있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형성된 대규모 노후 아파트단지를 기반으로 한 주거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탄천으로 배경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서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수서·세곡생활권은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으로 구성돼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 속 철도교통의 중심이 되는 생활권이다. SRT, GTX 역세권, 대모산, 탄천 등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광역교통중심 및 녹색환경 대규모 주거단지로의 개발계획이 설정돼 있고, 수서·문정지역의 중심지로서 향후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 강동구³⁾

강동구는 1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약 24.75km²(서울시 면적의 4.1%)에 약 49만명(서울시 인구의 4.9%)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동구는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천호·성내권’, ‘암사권’, ‘길동·둔촌권’, ‘명일·고덕권’, ‘강일·상일권’이 포함된다.

천호·성내생활권은 천호1·2·3동, 성내1·2·3동으로 구성돼 있고, 도시공간구조 및 거주환경의 변화가 큰, 지역중심지가 포함된 생활권이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양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지역사회의 변화가 예상되며, 정비사업의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천호길동 일대의 지역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며, 저층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암사생활권은 암사1·2·3동으로 구성돼 있고, 구리시로 연장될 8호선 개통, 구리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의 개통 등으로 강북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암사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와 암사1동 일대 서울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추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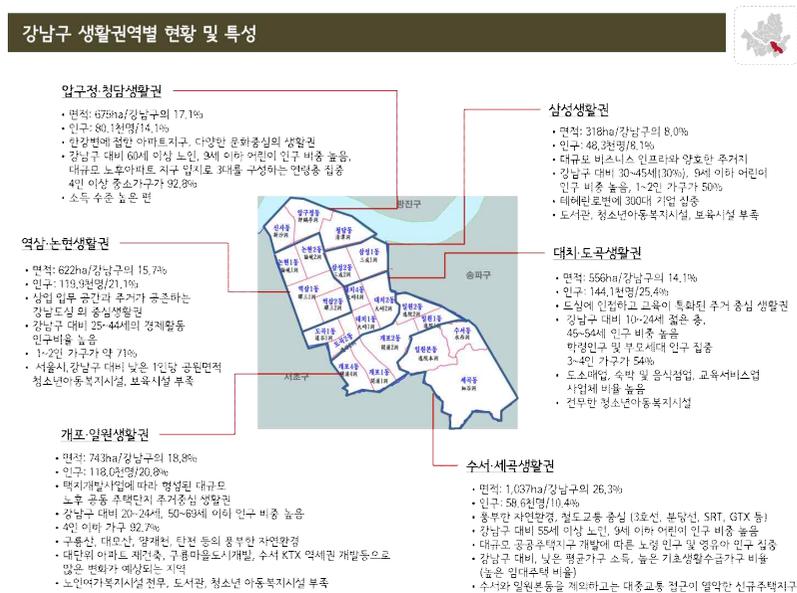
길동·둔촌생활권은 둔촌1·2동, 길동으로 구성돼 있고, 공원녹지와 중심지, 주거지가 공존하는 생활권이다. 천호길동 일대 지역중심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되고, 둔촌주공아파트, 삼익연립빌라 등 대규모 정비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9호선 연장개통 등 복합적인 정비사업으로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일자산 그린벨트의 환경보전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과제가 노정되고 있다.

명일·고덕생활권은 명일1·2동 고덕1·2동으로 구성돼 있고, 한강, 고덕산 등 자연환경과 노후주거지로 특징 지워지는 생활권이다.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대규모 주거지역이 입지해 있는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정비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 변화될 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 전망이 요구된다.

강일·상일생활권은 강일동과 상일동으로 구성돼 있고, 생활권 내외의 주거 및 업무기능의 개발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생활권이다.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주거조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인접한 하남미사강변도시의 준공 및 대규모 인구 유입, 지하철 5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인한 수도권 차원의 변화대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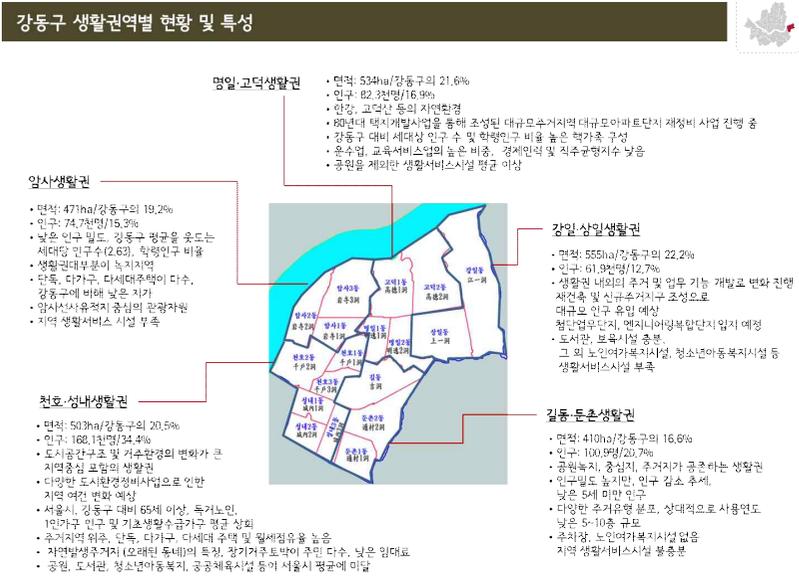
3)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 강동구(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area_25.pdf).

<그림 II-1> 서울시 동남권 강남구의 생활권역별 현황



필수하다. 아울러 첨단업무단지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추진으로 인한 업무중심 기능의 구축과 인근 상일동 주거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II-2> 서울시 동남권 강동구의 생활권역별 현황



4) 서초구4)

서초구는 1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약 47.0km²(서울시 면적의 7.7%)에 약 45만명(서울시 인구의 4.3%)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초구는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방배권’, ‘양재권’, ‘반포권’, ‘서초권’이 포함된다.

방배생활권은 방배본동, 방배1·2·3·4동으로 구성돼 있고, 풍부한 공원·녹지와 지역 자산이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양호한 자연환경(우면산, 서리풀산)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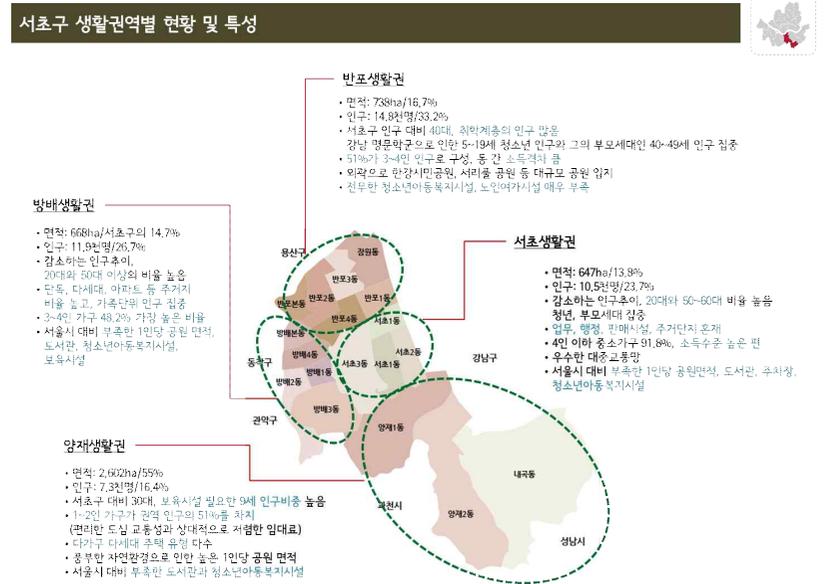
4)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 서초구(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area_22.pdf).

양재생활권은 양재1·2동, 내곡동으로 구성돼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정계산, 우면산, 구룡산, 양재천, 여의천, 시민의 숲 등)에 둘러싸인 다양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지를 지닌 생활권이다. 경기남부로 이어지는 수도서울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양재·우면 일대에 글로벌 기업 R&D 시설이 집적해 있다.

반포생활권은 반포본동, 반포1·2·3·4동, 잠원동으로 구성돼 있고,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환경변에 접한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권이다. 경부고속도로, 고속터미널, 환승역세권 등으로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울러 한강, 반포한강공원, 서리풀공원이 인접한 수변주거지로서 특징지어진다.

서초생활권은 서초1·2·3·4동으로 구성돼 있고, 강남 도심의 문화·예술·행정의 중심 생활권이다. 도심기능과 주택이 혼합된 복합시가지로 경제중심기능이 강화되고, 문화·예술산업의 발달로 주거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그림 II-3> 서울시 동남권 서초구의 생활권역별 현황



5) 송파구⁵⁾

송파구는 27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약 33.8km²(서울시 면적의 5.6%)에 약 68만명(서울시 인구의 6.5%)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송파구는 7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가락권', '송파권', '석촌권', '잠실1권', '잠실2권', '문정권', '거여·마천권'이 포함된다.

가락생활권은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으로 구성돼 있고, 풍부한 지역 자산과 공원·녹지, 가락·오금역세권 등 다양한 환경의 생활권으로 인식된다. 이 일대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인한 부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몽촌토성,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미술관, 방이습지, 성내천, 올림픽공원등 문화·유적자산과 대규모 전시·업무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송파생활권은 송파1·2동, 방이1·2동으로 구성돼 있고, 북동·남서측의 특성이 대비되는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생활권이다. 북측의 중저층 주거지 밀집, 남측의 중저층 및 고층 주거지가 혼재하고, 인구밀도와 경제활동 종사자도 많은 지역이다. 아울러 고분군, 미술관, 재래시장 등 다채로운 환경을 지니고 있다.

석촌생활권은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으로 구성돼 있고, 석촌호수, 탄천과 연결한 서민 및 사회진입 연령대 주민들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이 특징을 이룬다. 대부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형성된 후, 최근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도로 및 지하철 확장,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행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해 공간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고분군, 석촌호수, 탄천 등 자연·역사환경이 공존하고 있다.

잠실1생활권은 잠실본동, 잠실2·3·7동으로 구성돼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세대들로 구성된 주거지역이다. 2000년대 후반 재건축이 완료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해 있고,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중저층 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혼재돼 있고, 잠실새내역 일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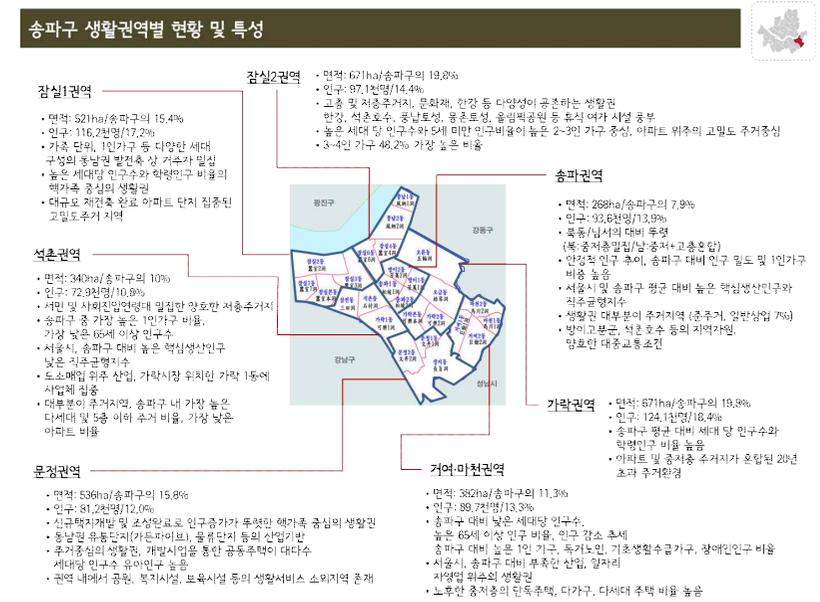
잠실2생활권은 잠실4·6동, 풍납1·2동으로 구성돼 있고, 잠실 일대의 중심지로, 고층 및 저층 주거지와 문화재, 수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이 공존하는 생활권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제시대 유적과 한강, 석촌호수 등 풍부한 문화·자연환경이 특색을 이룬다.

문정생활권은 문정1·2동, 장지동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변화가 진

행 중인 주거·자속기능이 공존하는 생활권을 지향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부터, 최근에는 위례신도시,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물류단지 사업, 지하철 노선신설 등으로 지역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거여·마천생활권은 거여1·2동, 마천1·2동으로 구성돼 있고,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보전과 변화의 요구가 공존하는 주거중심지 생활권이다. 천마산, 성내천, 남한산성 등이 근접한 환경과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비계획적 개발로 형성된 기존 구시가지와 대규모 신규개발 주거지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림 II-4> 서울시 동남권 송파구의 생활권역별 현황



5)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 송파구(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area_24.pdf).

2. 지역 시민사회의 양상

1) 시민들의 사회참여⁶⁾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기적인 사회통계를 통해 자원봉사, 기부,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먼저 2017년 자원봉사참여율 조사결과 동남권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2.3%로 서울시 평균(12.9%)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각각 10.5%와 10.8%, 12.7%로 나타났다.

<표 II-3> 2017 서울시 동남권의 자원봉사참여율(단위: %)

지역	서울시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자원봉사참여율	12.9	12.3	15.1	10.5	10.8	12.7

기부참여에 있어서 동남권 시민들의 2017년 기부참여율은 41.7%로 서울시 평균(3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동구는 37.0%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I-4> 2017 서울시 동남권의 기부참여율(단위: %)

지역	서울시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기부참여율	39.3	41.7	42.0	37.0	46.3	41.6

사회단체 활동 참여와 관련한 통계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항목으로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직능단체를 꼽을 수 있다. 동남권 시민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의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0.6%로 서울시 평균(0.8%)을 약간 밑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다소 높은 0.8%, 강동구와 서초구가 0.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동남권 시민들의 단체 유형별 활동참여율을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운동단체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서울통계서비스(<https://data.seoul.go.kr>).

<표 II-5> 2017 서울시 동남권의 단체참여율(단위: %)

지역	서울시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자원봉사단체	1.3	0.9	1.1	1.2	0.6	0.8
시민운동단체	0.4	0.3	0.2	0.1	0.4	0.6
노조/직능단체	0.7	0.5	0.5	0.1	0.4	0.9
총합	0.8	0.6	0.6	0.5	0.5	0.8

2) 지역 시민사회단체⁷⁾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목록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2018년 3월 작성된 목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4,0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고,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단체는 3,444개다. 이는 다시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와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로 나뉘는데 전자는 1,346개, 후자는 2,098개로 나타났다.

이중 동남권에 입지한 단체는 660개로 서울시 5개 권역 평균(688.8개)을 조금 밑도는 상황이다. 각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26개를 비롯해, 강남구 220개, 송파구 144개가 강동구는 70개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137.8개로 나타났다.

<표 II-6> 서울시 동남권 비영리민간단체 현황(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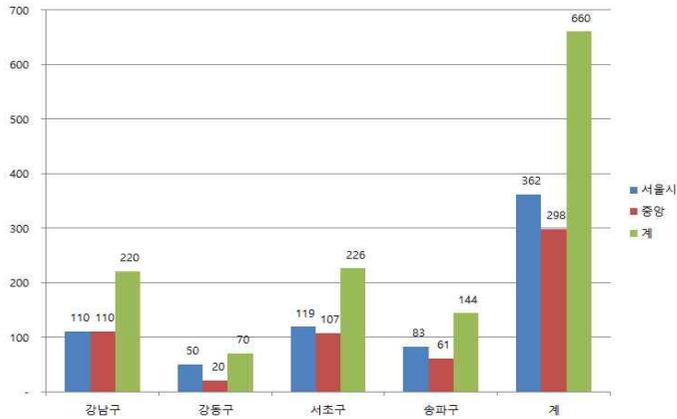
지역	계	중앙부처 등록	서울시 등록
강남구	220	110	110
강동구	70	20	50
서초구	226	107	119
송파구	144	61	83
계(동남권)	660	298	362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 등록된 동남권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등록부처별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51개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48개), 문화체육관광부(36개), 통일부(36개), 보건복지부(29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들의 등록부처별 현황을 보면 문화분야가 5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시민사회 관련 부서들이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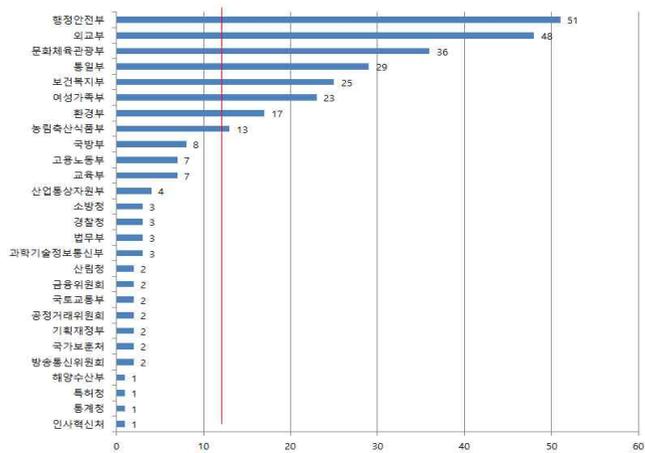
7)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한 서울혁신기획관실(45개)과 복지분야(40개), 평생교육정책관실(37개), 기후환경분야(37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서울시 등록 단체 모두 복지,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그 밖에 중앙부처 등록단체의 경우 외교와 통일분야가, 서울시 등록단체의 경우 평생교육과 환경(특히 기후환경 관련)분야에 많이 분포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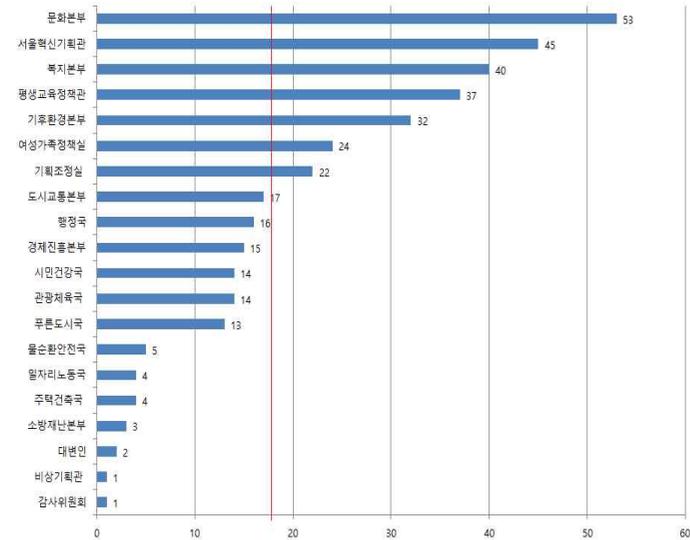
[그림 II-5] 서울시 동남권 비영리민간단체 현황(단위: 개)



[그림 II-6] 서울시 동남권 중앙부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부처별 현황(단위: 개)



[그림 II-7] 서울시 동남권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부처별 현황(단위: 개)



3. 선행논의 검토

1) 시민사회단체 기초조사

동남권 시민사회에 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다만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조사에 동남권 현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서울 지역 풀뿌리단체조사(2012), 서울시 풀뿌리 NGO 조사(2013), 서울시 여성NGO 현황분석(2014) 등이 포함된다.⁸⁾ 이들 기초조사에는 동남권에 입지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8) 서울시민연대·서울풀시넷. 2012.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서울특별시; 박상필·김봉렬·박철. 2013. 서울시 풀뿌리 NGO 조사; 한국NGO학회.김희경·이경숙. 2014. 서울시 여성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표 II-7> 기존 기초조사에 포함된 서울시 동남권 단체 목록

서울 지역 풀뿌리단체 조사(2012)	[강남]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2개 [강동] 강동시민연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강동지회,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송파지회-4개 [송파] 송파시민연대, 즐거운 가-2개
서울시 풀뿌리 NGO 조사(2013)	[강남]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2개 [강동] 생태보전시민모임(강동생태보전국), 미우갯보호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오래된미래, 청춘의대나무숲, 둔촌역사문화지킴이, 강동희망나눔센터, 함께크는우리도서관, 교육운동단체, 강동구자원봉사연합회, 수영산생태문화공동체-11개 [서초] 서초장애인자립센터, 행복중심여성민우회소비자생협(반포매장), 한살림서울생협(서초매장)-3개 [송파]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사랑봉사협회, 석촌지역아동청소년협회, 누리미지역아동센터, 송파맘들오세요, 송파시민연대, 송파녹색자전거봉사단,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즐거운가,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10개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2014)	[강남]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2개 [강동] 강동시민연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강동지회,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송파지회-4개 [송파]: 송파시민연대, 즐거운 가-2개

2) 단체 및 활동 사례연구

동남권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도 다른 권역에 비해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연구결과가 제출돼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빈민 운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빈민들의 정치적 세력화와 주변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민들의 리더십과 이에 기반한 비공식적 시스템과 공간을 매개로 한 역동적 과정을 분석했다.⁹⁾

송파구와 은평구의 노인지역사회보호서비스 공급 거버넌스 비교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간 네트워크에 제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건소의 영향력이 낮은 반면, 유료서비스인 가정간호기관의 역할이 포착되고 있다.¹⁰⁾

도시하천 살리기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는 양재천 살리기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민간사회부문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역량이 스스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¹¹⁾

9) 채상원. 2018.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전략과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36(2). 313-332.

11) 이시경. 2013. 도시하천 살리기 거버넌스의 특성비교: 은천천과 양재천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 실천사례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는 공동의 문제로 이슈화될 때 참여가 활성화되며,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가 중요한 전략이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유연하게 적용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¹²⁾

3) 지역 시민사회 분석

동남권 지역 시민사회에 관한 분석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인데, 다만 서울지역 시민사회 전반에 관한 분석에 동남권이 포함된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다. 강북구와 강동구의 기초부문 단체간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 강동구는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단체생태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기초부문 단체들의 주요 의제는 사회복지이며, 주요 활동양식은 자원봉사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국민운동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지역사회의 자생적 풀뿌리 단체의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¹³⁾

서울 지역 권역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사례 권역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동'을 '우리 동네'로 인식하는 반면, 강남/서초권의 경우 '아파트 같은 동'을 우리 동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한 권역이 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지역 시민사회 지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정부단체(전국의 1/4 가량)가 활동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사회(광역 및 기초수준)에 관심을 둔 단체가 많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2012년 발간된 비영리민간단체총람에 의하면 보유한 단체 중 중앙수준의 의제를 다루는 단체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1위에 강남구, 2위에 서초구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서울의 자치구 간 조건 차이에 따른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강남구는 핵심부 중 하나로 '만들어 진' 공간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런 조건은 비정부단체들의

145-170.

12) 최영선. 2002. 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 실천사례 연구: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現위례시민연대)의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정민수·조병희·이성천. 2007.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과 지역사회 역량. 보건행정학회지 17(4). 54-81.

14) 변미리.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SDI 정책리포트 103호.

15) 조철민. 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25(1). 179-212.

현황과 분포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남구의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앙부 문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반면, 풀뿌리단체와 활동은 비활성화되어 있다.¹⁶⁾

2015년 실시된 서울시 10개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현황조사에 강남, 서초, 송파 3개 자치구가 포함된 바 있다. 조사는 단체들의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정치·제도적 조건 등 4개 차원으로 구성된 시민행동지수(CAI)에 기반 해 진행되었는데 조사결과를 수치로 환산하고, 10개 자치구를 상·중·하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표 II-8> 서울 지역 10개 자치구 시민행동지수(CAI) 측정 결과 비교

차원	상위	중위	하위
사회운동성	광진, 영등포, 서초	종로, 마포, 중, 송파	도봉, 은평, 강남
지속가능성	광진 송파 , 도봉	중, 종로, 마포, 영등포	강남 , 서초 , 은평
환경적응성	광진, 종로, 송파	도봉, 영등포, 서초 , 마포	중, 강남 , 은평
정치·제도적 조건	광진, 송파 , 중	도봉, 강남 종로, 서초	은평, 마포, 영등포

16) 조철민. 2016. 서울의 자치구 간 조건 차이에 따른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 특성: 강남·마포·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6(2), 300-333.

17) 공석기·조철민. 2016. 시민행동지수(HASK CAD)를 통해 본 서울지역 시민사회. 학예사.

Ⅲ. 활동 주체의 현황과 인식

1. 조사개요

동남권에 입지한 단체와 기관, 활동가들의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구조화된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총 132명의 활동가들이 응답했다.

<표 III-1> 동남권 활동가 설문조사 내용

- 인적사항: 성별, 연령, 활동지역(자치구)
- 단체현황: 단체의 법적 성격, 재원마련 방법, 활동가수, 사무공간 유무
- 활동가현황1_상태: 활동경력, 근무형태, 고용형태
- 활동가현황2_요구: 성장가능성,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수요, 자기개발의 장애요소
- 단체활성화: 단체회원의 증가여부와 활동영역, 단체회원 감소원인, 권역별 지원사업 인지여부
- 공익활동지원: 활동가간 교류현황과 장애요소, 단체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공익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필요한 지원,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자유의견

조사대상은 동남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다.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도 포함되지만, 주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사대상 구성의 기반이 됐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단체들과 새로이 발굴된 단체들을 포함한 동남권 시민사회단체 목록을 구성했고, 이를 활용해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표 Ⅲ-2> 연구를 통해 구성된 동남권 시민사회단체 목록

지역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강남자활센터,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숲여울기후환경넷, 아이쿱생협 강남지부, 이소 인문심리상담센터 한살림 남부지부, 강남교육,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춧불, 강남마을넷, 강남햇빛협동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문화재단, 강남자활지원센터, 넷몰아 흘러흘러, 에코허브, 커뮤니티허브공감, 세자울된장맘, 강남서초녹생평론독자모임
서초	시민의숲친구들, 양재마을넷, 협동조합점터, 서초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 별류가든, SH 3단지 작은 도서관
송파	송파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퍼스트페이지, 송파연대회의, 서울시동남권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남부여성민우회, 플랜터스,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파란하늘공동육아방과후
강동	열린사회송파강동시민연대, 청소년공간 토닥토닥

<표 Ⅲ-5> 응답자의 활동지역 분포

항목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계
도수(백분율)	81명(61.8%)	7명(5.3%)	20명(15.3%)	23명(17.6%)	132명(100.0%)

2) 단체현황

소속단체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복수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응답 방식의 질문이 제시돼 총 158건의 응답이 제출됐다. 조사결과 비영리민간단체가 39.4%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경제조직(26.5%)과 개인활동가(12.1%)가 뒤를 이었다.

<표 Ⅲ-6> 소속단체의 법적 성격 분포

항목	도수	백분율
사단법인	14	10.6%
재단법인	10	7.6%
비영리민간단체	52	39.4%
임의단체	15	11.4%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35	26.5%
개인활동가	16	12.1%
기타	16	12.1%
계	158	100.0%

2.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132명 중 여성이 77.1%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에 있어서는 40대가 55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44명), 30대(24명)가 그 뒤를 이었다. 40~50대가 75.6%로 활동가 집단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활동지역과 관련해서는 강남구 활동가가 81명(61.8%)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의 경우 7명으로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 점은 이번 기초조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표 Ⅲ-3> 설문조사 응답자 성별 분포

항목	여성	남성	계
도수(백분율)	102명(77.1%)	30명(22.9%)	132명(100.0%)

<표 Ⅲ-4> 응답자 연령 분포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도수	3명	24명	55명	44명	5명	132명
백분율	2.3%	18.3%	42.0%	33.6%	3.8%	100.0%

<표 Ⅲ-7> 소속단체의 재원 출처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계
회비(후원금 포함)	32	27	20	79
지원사업(지자체, 기업, 재단 등)	64	26	9	99
수익, 재정사업	26	22	20	68
기타	9	8	30	47

3) 활동가 현황1_상태

응답자 소속단체의 활동가 인원규모에 있어서 10인 이상인 경우가 56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5~9인이 27명(20.8%)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인 경우도 7명(5.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위 '1인 단체'이거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표 Ⅲ-8> 소속단체의 활동가 인원규모

항목	1인	2~3인	4~5인	5~9인	10인 이상	결측값	계
도수	7	19	20	27	56	2	132
백분율	5.4%	14.6%	15.4%	20.8%	43.1%	1.6%	100.0%

활동가들의 활동경력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인 활동가가 42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1~3년이 29명(22.0%), 3~5년이 24명(18.2%)로 나타났다. 신입활동가라 할 수 있는 '1년 미만'과 '1~3년' 경력의 활동가가 49명(37.2%)로 나타났다.

<표 Ⅲ-9> 활동가의 공익활동 경력 기간

항목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계
도수	20	29	24	17	42	132
백분율	15.2%	22.0%	18.2%	12.9%	31.8%	100.0%

활동가들의 근무형태에 관해서 단체의 비상근직인 경우가 54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상근직인 경우가 53명(40.2%)로 뒤를 이었다. 단체에 근무하는 형태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반상근의 경우는 많지 않았고, 상근과 비상근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가의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인 경우가 42명(31.8%)로 가장 많았다.

<표 Ⅲ-10> 활동가의 근무형태

항목	도수	백분율
상근직	53	40.2%
반상근직	2	1.5%
비상근직	54	40.9%
기타	9	6.8%
무응답	14	10.6%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파트타임 기획 △프리랜서 △봉사 △한 달에 한번 △조합원 △운영위원회 △자원활동 영역 △임시직 △여러 형태 △임의활동.

<표 Ⅲ-11> 활동가의 고용형태

항목	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	파트타임	기타	무응답	계
도수	42	20	16	25	29	132
백분율	31.8%	15.2%	12.1%	18.9%	22.0%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자원봉사 △일용직 △직접 운영 △무수익 △재능기부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고 상시 활동 △프로젝트 참여 △자발적 참여 △열정페이 △고용성립 안 됨 △강사로 △무보수 △한살림 식생활 강사 △자율봉사 △한 달에 한번 △자주적 참여 △자원활동가 △자원봉사 연400시간 △건별 △고용형태 아님.

단체의 사무공간에 관한 질문에 단독 공간을 보유한 경우(39.4%)가 가장 많았고, 공유공간인 경우와 사무공간이 없는 경우가 각각 31.1%와 20.5%로 나타났다. 한편 단독공간인 경우 중 월세로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단체 사무공간

항목	도수	백분율
단독 사무공간 없음	27	20.5%
공유공간 사용	41	31.1%
단독공간(자가)	11	8.3%
단독공간(전세)	8	6.1%
단독공간(월세)	33	25.0%
기타	3	2.3%
결측값	9	6.8%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무상 △무상임대.

4) 활동가현황2_요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가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절반

에 가까운 응답자(47.7%)가 성장가능성에 긍정적인 인식('높다'와 '매우 높다')을 나타낸 한편, '보통'이라고 답해 유보적인 인식을 나타낸 응답자도 45.5%로 나타났다.

<표 III-13> 단체에서 활동가 성장가능성에 관한 인식

항목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계
도수	1	8	60	52	11	132
백분율	0.8%	6.1%	45.5%	39.4%	8.3%	100.0%

활동가 역량강화와 관련해 소속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수준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매우 많이 한다'와 '약간 지원한다')가 45.7%로 나타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도 48명(36.4%)로 나타났다. 아울러 활동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는 60.6%가 단체 활동을 위한 전문성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행정, 교육, 문서작성 등 전문기술에 관한 교육수요도 27.3%로 나타났다.

<표 III-14> 단체에서 활동가 성장가능성에 관한 인식

항목	매우 많이 한다	약간 지원 한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계
도수	21	38	48	19	6	132
백분율	15.9%	28.8%	36.4%	14.4%	4.5%	100.0%

<표 III-15> 활동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항목	도수	백분율
사명 및 목표	15	11.4%
단체활동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	80	60.6%
전문기술(행정, 교육, 문서작성)	36	27.3%
기타	1	0.8%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이미 지속적인 교육 실행.

활동가의 자기개발에 있어서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각각 30.3%와 37.9%로 나타났고, 주변 환경(19.7%)과 의지·목표(10.6%)의 문제가 뒤를 잇고 있다.

<표 III-16> 활동가 자기개발의 장애요소

항목	도수	백분율
비용	40	30.3%
시간	50	37.9%
의지·목표	14	10.6%
주변환경	26	19.7%
기타	2	1.6%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적은 급여 △업무량과 업무내용.

5) 단체 활성화

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이 50.8%로 나타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도 36.4%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원이나 시민참여가 증가하는 경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자조모임이 33명(34.7%), 교육이 28명(29.5%), 자원봉사가 21명(22.1%), 캠페인이 6명(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단체 회원·시민참여 증가여부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도수	14	53	48	15	2	132
백분율	10.6%	40.2%	36.4%	11.4%	1.5%	100.0%

<표 III-18> 단체 회원·시민참여 증가 분야

항목	도수	백분율
교육	28	21.2%
자조모임	33	25.0%
자원봉사	21	15.9%
캠페인	6	4.5%
기타	6	4.5%
결측값	37	28.0%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공모사업 △채식인구증가 △활동가 증가 △마을을 위한 △연극활동 △동호회 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

소속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참여가 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에 관한 질문에 홍보 부족(21.2%), 프로그램 부족과 시민밀착형 의제 부족(10.6%), 소통 부재(9.8%), 홍보 부족(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단체 회원·시민참여 증가 분야

항목	도수	백분율
프로그램 부족	14	10.6%
시민밀착형 의제 부족	14	10.6%
소통 부재	13	9.8%
홍보 부족	28	21.2%
기타	7	5.3%
무응답	56	42.4%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매주 모이는 모임을 부담스러워 하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민들이 단체활동에 관심이 없다 △장소부족 △조합원이 원하는 편의성 △의식부재.

6) 공익활동지원

최근 서울시가 5개권역(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별로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인지여부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활동가들이 알고 있는 것(59.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남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한지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은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매우 많다'와 '약간 많다')이 22.0%, 부정적인 응답('거의 없다'와 '매우 없다')이 37.9%로 나타났다.

<표 III-20> 동남권 공익활동가간 교류 정도

항목	매우 많다	약간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매우 없다	계
도수	7	22	53	43	7	132
백분율	5.3%	16.7%	40.2%	32.6%	5.3%	100.0%

공익활동가간 교류의 장애요소에 관해서는 정보 부족(25.8%)과 시간 부족(25.0%)이 가장 많이 지목된 가운데, 교류활동의 좋은 점을 찾지 못하는 효용감 부족(18.9%)과 공간 부족(17.4%)가 뒤를 이었다.

<표 III-21> 동남권 공익활동가간 교류의 장애요소

항목	도수	백분율
시간 부족	33	25.0%
비용 부족	16	12.1%
공간 부족	23	17.4%
효용감 부족	25	18.9%
정보 부족	34	25.8%
기타	1	0.8
계	132	100.0%

주: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포함됨. △네트워크 의식부재.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 동남권 공익활동가와 단체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89.4%로 압도적인 가운데, 그 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61.4%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자치구를 넘어서는 공익활동기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도수	81	37	13	1	0	132
백분율	61.4%	28.0%	9.8%	0.8%	0%	100.0%

향후 동남권에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약간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 68.1%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24.3%)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긍정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동남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의견

항목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
도수	2	8	32	44	46	132
백분율	1.5%	6.1%	24.3%	33.3%	34.8%	100.0%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4개 과제별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종합적으로는 5점 만점에 4.1점을 부여해 과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종합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과제에는 '시민과의 연결'(4.3

집), '재정', '공간', '활동가 역량강화', '활동가간 네트워크', '단체 간 연대', '정보공유', '활동을 위한 콘텐츠'(각각 4.2점)가 포함됐다.

<표 III-24>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 과제별 필요성에 관한 의견

항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점
재정(사업비/인건비)	1	1	17	65	48	4.2
공간	1	0	21	56	54	4.2
장비	1	4	32	70	25	3.9
활동가 총원	1	2	30	71	28	3.9
활동가 역량강화	1	3	13	68	47	4.2
조직문화개선	1	2	28	58	43	4.1
활동가간 네트워크	1	2	17	61	51	4.2
단체간 연대	1	1	19	63	48	4.2
정부·기업과의 협력	1	5	19	62	45	4.1
시민과의 연결	1	4	11	57	59	4.3
정보공유	1	2	16	60	53	4.2
활동을 위한 콘텐츠	1	0	21	58	52	4.2
공익활동 담론(의제)	1	4	24	60	43	4.1
지역 시민사회 실태조사	2	2	23	63	42	4.1
계	15	32	291	872	638	4.1

주: 평점은 '전혀 불필요'에서 '매우 필요'에 1~5점을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5점 만점 환산점수임.

끝으로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자유의견 요청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표 III-25>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자유 의견

<p>자원지원(재정, 공간 등)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강남구는 공유공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시민사회 단체가 행정의 눈치 보지 않고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 사업지원비, 열악한 인건비 개선 ○ 소중한 재정과 사람이 꼭 필요한 마을에 쓰여지고 공간과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 활동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 시간 소요에 비해 경비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p>활동가-조직 지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도록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 활동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 그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 교육 및 예산 강화
--

-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의제에 맞는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 적극적인 행정의 단체 관심 및 지원
- 시민단체의 방향성이 필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결지원(네트워크, 사회적지지, 영역간 협력 등) 관련

- 공익활동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 연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 활동가네트워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익활동의 키는 시민력의 강화다
- 교류 지원
-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및 연대 지원
- 교류가 없어서 뭐라 말하기가 좀 ...
- 끈대들이 후배들 자리 좀 만들어 줬으면.
- 홍보와 지속된 관심의 필요
- 자주 만나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민관협력이 잘 되기를 바람
- 공익활동가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먼저 돼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훨씬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역별 사업전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참여 독려 필요.

정보, 콘텐츠, 연구조사 지원 관련

- 의제설정 및 공유. 네트워크. 정기적 활동. 재정 및 공간지원 등.
- 동남권 전체 시민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분석&반영한 참신한 공익활동아이디어
- 정보소통과 홍보 교류
- 이론이 아닌 작은 거라도 실천과 실체가 필요
- 아파트의 성곽을 허문 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양성
- 아직은 인식의 부족으로 홍보가 필요함.
- 어떤 활동이든 재정, 공간, 명확한 목적, 현 상황을 알 수 파악할 조사, 활동가(단체)간 연계가 필요한 것 같다

종합적 의견 및 기타 의견

-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활동이 시작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익 활동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세요
- 홍보, 열린 공간, 수용
- 화이팅~ 모든 단체가 참여하고 아우를 수 있게
- 열린 마음
- 기운이 솟을 때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급하진 않아도 늦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 npo센터가 꼭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 해 주세요
- 자발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공익활동이 필요함

IV. 공익활동 활성화 의견 수렴

1. 포럼 개요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범위를 모색한다. 그러므로 현재 시민사회의 정확한 지형이나 움직임을 통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는 시차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변화무쌍함을 고려하면, 어느 시점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빠짐없이 모두 포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동남권 시민사회를 통계적, 전면적으로 파악한다는 측면 이외에, 동남권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만남으로써 권역 내 시민사회의 새로운 움직임과 고민을 파악하고, 활동가들 간의 연대의식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목표를 위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총 5차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모임은 FGD(Focus Group Discussion)의 형태로, 동남권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동남권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권역 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간 지역 내 네트워킹이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서로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네트워킹 하는 장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낸 모임이었다. 1차 모임(10.15)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야기 된 바, 2차(10.29)와 3차 모임(11.5)에서는 동남권의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를 개괄하고 단체별 활동내용을 나누는 형식으로 '동남권 시민사회,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여기에는 80년대부터 지속된 노동, 빈민운동에서부터 최근 세월호 이후 급격히 부각된 '교육의제', 자율적 '공간'들의 부상까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다루어졌다. 4차 모임(11.19)에서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및 그 간의 토의내용을 개괄하고, 권역 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5차 모임(12.3)에서는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과 공공 공간운영 이슈와 지원과정, 공간을 매개로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 NPO 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셜벤처기업 엔스페이스의 사례를 공유했다.

<표 IV-1> 공익활동 활성화 의견수렴 포럼 개요

회차	일시/장소	참가현황		주요내용
		인원	단체	
1차	2018. 10. 15 14:00 / 벨류가든	18명	강남 9 서초 6 송파 3 강동 0	*동남권 지역민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점검 *동남권 활동가들의 필요 파악
2차	2018. 10. 29 16:00 / 서울시동남 어르신돌봄중사자 지원센터	19명	강남 9 서초 1 송파 9 강동 0	*동남권 시민사회, 지난 30년의 역사 1. *80년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활동가, 시민단체들의 활동 내용 공유
3차	2018. 11. 5 15:00 / 카페 두잉	26명	강남 12 서초 1 송파 5 강동 0	*동남권 시민사회, 지난 30년의 역사 2. *최근 10년간 두드러진 공간중심의 시민활동 흐름 공유
4차	2018. 11. 19 15:00 / 벨류가든	14명	강남 6 서초 1 송파 2 강동 2	*활동가 대상 연구내용 중간보고 *동남권 NPO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5차	2018. 12. 3 15:00 / 웨어워라운지	17명	강남 4 서초 2 송파 2 강동 0	*NPO 중간조직 활동 사례 *공간공유사업의 새로운 흐름

2. 1차 활동가 포럼: 활동가들의 목소리

1) 개요

1차 모임은 '동남권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 현황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점검 / 지역 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활동가들의 필요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권역 내 가능한 많은 활동가들에게 참석요청을 하였으나, 강남/서초 지역 활동가들 중심으로 참석¹⁸⁾이 이루어졌고, 논의도 통칭 '강남지역'으로 대변되는 서초

18) 1차 활동가 포럼 참여 단체(10.15) 총 18개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강남자활센터, 문화예술연구소다윈, 숲여울기후환경넷, 아이룸강남, 이소인문심리상담센터, 한 살림남부지부, (사)공공,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송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석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세션은 활동가들이 느끼고 있는 동남권 지역민들의 특징 및 '공익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활동가들이 예상하는 지역민들의 공익활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은 활동가들의 활동 동기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와 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2) 활동가들이 느끼는 동남권

개인주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 저조 활동가들이 묘사하는 지역민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존재감과 영향력을 중시하는 태도 / 개인주의 / 교육 중시 /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 크고 자신이 관심을 가진 일은 끝까지 추구하고 이루어 내려는 집념을 보이지만,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알아서 진행할 뿐 그것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함께 해결하려는 일은 드물다'고 묘사되었다. 주민들의 개인적 자질이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힘을 공익활동의 장으로 꺼내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낮은 신뢰를 보였다.

'대전사람(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 사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민들의 관심은 '교육과 가족'에 집중되어 있고, 정주의식도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치동'에 대한 이야기를 동남권 전체의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강남권'으로 통칭되는 강남/서초/송파 지역민들이 '개인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또, 그런 만큼,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공익활동에 차가운 태도 다음으로, '공익활동'이라는 말에 지역민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활동가들에게 3장 이내의 메모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자유롭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 1차 포럼 워크숍 장면



참여자들은 '긍정/중도/부정'이라는 감정의 카테고리로 쓰여진 단어들을 분류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 '공익활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공유 결과

부정적 감정(18개)	중도(5개)	긍정적 감정(8개)
불편한, 무관심, 굳이 내가?, 나랑 무슨 상관, 공짜야?, 이상한 사람. 조직, 생소함, 그게 왜 필요해?, 그래서?, 넌 뭐니? 알마면 되니? 부르지는 마!	그게 뭐가요? 왜 필요한가요?, 나와는 무관한, 남이 하면 좋은 것, 행정이 할 일, 정치	이타성, 희생, 좋지만(돈으로만) 참여할게, 자원봉사, 공공근로, 봉사, 해이지~

전체적으로 부정으로 분류된 내용이 훨씬 많았고, 중도로 분류된 내용도 어투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차이만 있을 뿐 부정적 평가와 큰 차이는 없었다. 주로 무관심 또는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일이라는 구분 짓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분류 결과를 놓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평가하는 활동가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활동 중에 느꼈던 지역주민들의 반

[서초] 시민의숲친구들, 양재마을넷, 협동조합센터, 서초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 SH3단지작은도서관, 벨류가든, [송파] 송파시민연대, 퍼스트페이지, 커뮤니티허브공간.

응이 차갑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인다.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익활동'의 카테고리로는 '교육/환경/안전' 등이 주로 거론되었는데, 이 중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주로 자녀교육에 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3) 활동의 이유와 어려움

자기확신과 사명감에 기반한 활동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온 이유는, 공익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순기능에 대한 자기 경험과 확신에 기반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활동가들은 오랜 기간 일 해온, 다양한 성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라, 자기 의제와 참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확신을 확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구체적 어려움들에 대해 매우 열띤 토로가 이어졌다. 어려움은 주로 '자원(공간과 사람)의 부족과 네트워킹, 인식변화(홍보)에 대한 것'들이었다.

자원의 부족, 활동 환경의 악화 동남권은 서울 내에서도 높은 지가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공익 활동의 근거지로 삼을만한 공간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게 발붙일 공간 없음이 활동의 큰 좌절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가가 높아지는 만큼 활동가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는 공익 활동의 공간은 더 없어지고, 활동가들은 수적 열세와 존재감의 약화를 절감하며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가 약화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활동가를 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활동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한다. 지역의 문제에 자발적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나타나려면 그만큼 '지역 내 공익활동 영역의 존재감이 있어야'하는데, '동남권 공익활동의 공간 부족과 존재감 부족의 문제'는, 전체 시민사회 영역이 겪고 있는 '젊은 활동가 유입의 장애요인에 더불어, 지역 공익 활동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새로운 활동가들의 유입이 어렵다는 것은, '단체별로 기존의 중·장년층 활동가들에

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방식이 유지되기 쉬우며,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킹 등 활동 영역의 시야를 넓히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 공익활동 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물적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활동가들이 토로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3. 2차 / 3차 활동가 포럼: 동남권 공익활동의 기억

1) 개요

동남권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가? 시민사회 영역이 활성화 된 지난 30년간 주요한 활동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성취와 어려움을 느껴 왔는가?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흐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두 차례의 포럼을 열고 동남권 지역의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2) 2차 활동가포럼

2차 모임에서는 서초/강남/송파구에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모임¹⁹⁾과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송파지역 송파지역에서는 열린사회시민연합송파강동 / 송파시민연대 / 위례시민연대 /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각 단체의 연혁과 주요 활동내용을 공유했다. 송파지역 단체들은 80년대 진보시민운동에서 시작해서 지역에 밀착된 의제(빈민운동 / 노동운동 / 저소득층 자녀 돌봄 등)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대하며 실천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 돌봄, 집수리 봉사활동, 무료 치과진료, 도서관 사업 등 생활 밀착 활동들과 총선시민연대, 노동인권학교, 지역의정감시활동 등 민주시민운동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체 활동이 비교적 활발

19) 2차 활동가 포럼 참여 단체(10.29) 총 19개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숲여울기후환경넷, 아이쿱강남, 이소인문심리상담센터, 강남웃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녹색평론모임, 강남햇빛협동조합, 前남부여성민우회, [서초] 벨류가든 [송파] 송파시민연대, 퍼스트페이지, 커뮤니티허브공감, 위례시민연대, 플랜터스,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송파강동, 서울시동남권어르신돌봄봉사자지원센터, 송파활동가네트워킹.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의제가 지역화 되고 부문의제별로 전문화 되어 전체적인 연대활동의 필요 보다는 아동, 청소년 등 의제부문간 연대나 활동기반 중심 역량 집중의 시기 등 활동 공간의 축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의 성취와 시민사회 역량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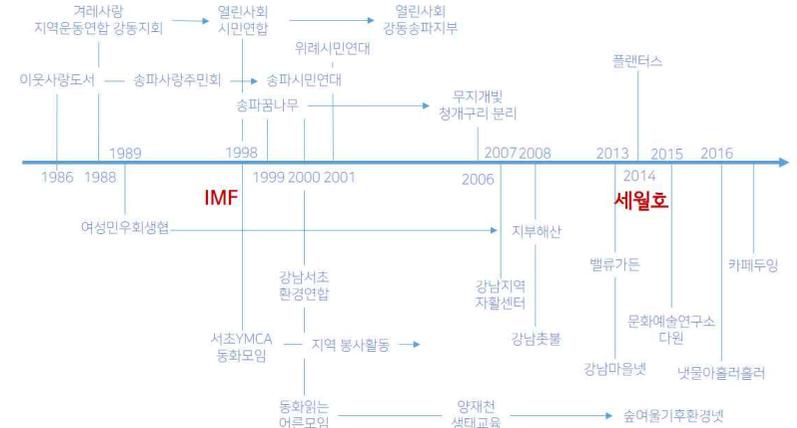
한편, 송파지역 단체들의 동남권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한 '광역 연대, 혹은 행정과의 거버넌스에 대한 태도는 다분히 유효적'이었다. 동남권이라는 생활권역 중심으로 모이기에 지금까지 '동남권 내의 연대 경험이나 동질성 확보에 대한 전망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관과의 협업이 '지역에 가져다주는 가시적인 성취가 분명히 있지만, 독자적 지역활동의 동력을 잠식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 보였다. 'NPO 활동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내비쳤다. 이는 박원순 시장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많은 인적 자원들이 '행정에 흡수된 경험'과 관련되어 보인다.

서초/강남지역 서초/강남지역에서는 (前)남부여성민우회 / 강남촛불 / 강남서초환경연합이 발표를 맡았다. 前남부여성민우회는 비교적 초창기인 89년 강남 지역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생협활동과 지역 봉사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나 조직화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지부를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계급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강남촛불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 반대투쟁 국면에서 강남지역 촛불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스스로 조직화를 거부하고 의제 중심의 느슨한 온라인 기반 개인연대체로 존재하고 있다. 강남서초 환경연합은 중앙에서 지역조직화를 목표로 2000년 설립하여 활동가를 파견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 석면문제 등을 통해 지역민과 연대활동을 모색했으나, 집단적 의사표현을 선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민들의 성향 때문에 어려웠다고 한다.

서초/강남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조직화'의 어려움, '시민들과의 결합'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지역민들의 특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이건 개인적 역량에 기대 해결하려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따라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로서는, 기존의 운동 방식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강남촛불 등이 지향하는 조직화의 거부도 오히려 시민 개인의 운동성을 살리고자 하는 방

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2] 서울시 동남권 지역 시민사회의 흐름



3) 3차 활동가 포럼

3차 모임20)에서는 동남권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자, 최근 10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지역단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의 페미니즘카페 '두잉', 자원봉사'이음', '강남지역자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문화예술연구소다원' '넷물아홀러홀러', '세자울된장맘', '숨여울기후환경넷'. 서초의 '벨류가든', 송파의 '엄마학교', '플랜터스', '퍼스트페이지', '커뮤니티허브공감' 등 13개 단체가 단체별 연혁과 활동내용을 공유했다. 이 기간 지역에서 두드러진 의제 중심 공간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중, 카페두잉, 플랜터스, 벨류가든, 넷물아홀러홀러는 개인/단체가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공간 실험**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훈련된 활동가들이 지역민 교육을 통해 조직을 확장하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의제에 공감하는 개인/단체가 관심 의제가 개성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같은 고민과 필요를 갖고 있는 시민으로 확장되는 방식

20) 3차 활동가 포럼 참여 단체(11.5) 총 18개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에코허브, 숨여울기후환경넷, 아이쿱강남, 강남문화재단, 강남지역자활센터, 넷물아홀러홀러, 이소인문심리상담센터, 문화예술연구소다원, 세자울된장맘, 강남서초녹색평문모임, 한 살림남부지부, [서초]벨류가든, [송파] 퍼스트페이지, 커뮤니티허브공감, 플랜터스, 송파활동가네트워크, 파란하늘공동육아방과후.

이다. 이러한 개인(활동가)들은 페미니즘, 지역 공익활동 촉진, 육아공동체 등 자신에게 절실한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카페나 상담센터 등 공간을 확보하고, 이후 이 공간을 통해 작은도서관, 모임 지원, 공간대관 등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며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자울된장담 사례는 강남구 세명초, 자곡초, 율현초의 학부모회연합 활동으로 '우리동네장독대' 를 시작으로 지역내 된장, 고추장 명인들을 찾아 정월 장담그기 공동 활동을 시작으로 GMO반대 활동 등으로 성장하는 모임도 흥미로웠다.

<표 IV-3> 동남권에 새롭게 등장한 공간실험형 단체들의 활동 내용

공간명	의제	활동내용
강남 카페두임	페미니즘	페미니즘 독서모임, 교육, 작은도서관, 아트갤러리, 상담소, 서점, 굿즈샵, 영화상영, 공간대관 등
송파 플랜트스	지역연대공간	세월호 추모, 상담센터, 동네골목매거진,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열린공간
서초 뽕류가든	인문공감교육	시민/공익활동가 교육, 시민참여활동 디자인, 인문체험활동, 작은도서관, 동네배움터, 공간대관 등
강남 넷몰아힐러힐러	육아 커뮤니티	육아커뮤니티를 위한 열린공간, 작은도서관, 시민강좌, 공간대관

또한 '숲여울기후환경넷'은 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 시작된 학부모 모임으로, 지역 환경의 이슈를 자녀교육과 연결해 양재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 실험형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양재천 주변에 직접 1m×1m 습지를 만들고 도롱뇽 뱀꽂이 서식지를 '조성'하는 활동 같은 실천과 환경교육을 겸하고 있는 단체이다. '엄마학교 협동조합'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능력 있는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하고자 시작한 독서모임에서 출발했다. '문화예술연구소다원'은 공익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욕구를 받아내고 예술활동의 공적 기여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시작된 공익단체들의 흐름은 거대 담론이나 의제에 개인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서 출발한 의제와 그 필요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형식**이 두드러진다. 이런 단체들은 대개 1,2인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활동가들의 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립되거나 활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런 점에서 동

남권시민사회활동가네트워크를 위해 2013년 6월 준비를 시작하여 2014년 1월에 창립한 커뮤니티허브공감의 실험은 주목해 볼 만 하다. '지역과 활동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을 지향하여 활동가 대상의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교육이나 '나눔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활동가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4. 4차 활동가포럼 : 연구중간보고와 활동가 의견수렴

4차 모임²¹⁾은 활동가들에게 이번 연구의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서울시의 NPO 지원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도모되고 있는 것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남권 시민사회를 개괄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지난 포럼 내용들을 공유했다.

특히, 서울시가 실시해 온 생활권역별 실시된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는데 활동가들은 대부분 이 워크숍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참석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 단위 전달체계의 보편적 구조화가 과제로 드러난 셈이다. 지역 활동 중심 활동가들의 의견이 이런 경로를 통해 행정에 수렴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한 시민들과의 협업에 목마른 시민단체 입장에서 행정의 마련한 공론의장이 훌륭한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을 통합적으로 잘 알리는 방법도 지원체계의 고민이기도 하다.

통계자료를 통해 본 동남권 시민사회의 모습에서는 탄천을 중심으로 동남권의 동, 서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서초/강남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비영리단체가 존재하지만 그 중 대부분이 중앙조직으로, 지역 단체의 비중 및 활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송파/강동은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활동가들의 참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동의 결과가 두드러지는데, 주민의 정주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행정의 독려가 두드러졌던 지역이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동·서의 차이는 권역 내 네트워킹과 거버넌스에 대한 활동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서초/강남의 활동가들은 네트워킹에 대한 기대를 크게 드러냈다. 협치를 통한 행정의 NPO 분야의 지원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활동가들은 서울시가 동남권을 지원해야 할 이유를 뚜렷이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21) 4차 활동가 포럼 참여 단체(11.19) 총 11개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에코허브, 숲여울기후환경넷, 아이쿱강남, 강남서초녹색평원모임, 한살림남부지부 [서초] 뽕류가든 [송파] 퍼스펙티브, 커뮤니티허브공감 [강동]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 청소년공간토닥토닥.

생각하였다. 이런 태도는 서초/강남 지역에서 공익활동이 처해있는 어려움이 크고, 이 지역의 활동가들에게는 '연결과 연결, 지속성, 세대 영입 등'의 과제들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송파/강동지역의 활동가들은 행정의 협치를 통해 지역조직들의 활동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자치구-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등 10여개 지원프로그램 및 중간지원 조직이 지역 활동가들과의 물적 비교'가 사실인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즉, 지원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정보력과 활동비에 대한 실질적 차이들 같은 문제점들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지역에 밀착된 조직 활동과 연대체를 꾸려나가던 지역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거버넌스(협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권역에 대한 행정의 지원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5차 활동가포럼 : 사례 공유 통한 동남권 지원 체계 상상

5차 모임(22)은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활동 사례와 엔스페이스의 공간공유사업 사례를 듣고, 동남권 시민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 축진을 목표로 하는 중간조직들이 차례로 기관의 활동내용을 개괄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에서 시작된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사)시민이 운영주체를 맡고 있다. 조직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2014~2017 1기 사업을 지나, 2018년부터는 '변화를 만드는 지원'을 위한 2기 사업을 시작했다. NPO지원의 중앙조직 역할을 맡아 공간, 확산, 연구,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동북권NPO 지원센터는 동북 지역의 독특한 환경의 영향으로 권역별 NPO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동북 5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에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었고 그들 간의 네트워킹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데다, 한신대가 시민사회 활동의 쉼크탱크 역할을 해내면서 활동가들과 연구가들의

협업이 가능했다. 동북권NPO 센터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활동가들의 놀이터'를 표방하고 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의 활동가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관심 있었던 주제인 공간지원사업도 청소년휴카페/마을북카페/마을예술창작소/마을기업/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찾동마을활력소/일반마을활력소 등 활동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서울시 주도의 각 영역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부지런히 사업영역을 넓히고 또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지원조직의 활동가들조차 타조직의 활동내용이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교류하지 못하고 있어 비슷한 활동들이 각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차 포럼에 참여한 각 기관의 활동가들도 타조직의 활동내용을 듣고 이해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데 동의했다. 이런 경우, 조직 간의 활동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활동과 관심사가 어느 조직에 속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복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의 활동가들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활동영역을 간결하게 구분해낼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류와 정리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 공유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소셜벤처 엔스페이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코워킹오피스부터 셰어하우스까지, 공간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엔스페이스 활동 중 흥미로웠던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콘셉트로 홍보하도록 해 다양한 사용자와 연결함으로써 숨어있는 공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스페이스 클라우드(Space Cloud) 공유 앱 사업이었다. 참석자들은 행정 지원으로 마련된 마을카페와 작은 도서관들이 엔스페이스의 사례와 같이 연결되고 공유된다면 획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6. 시사점

총 5차례 진행된 포럼에는 동남권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포럼 자체에서 이뤄지는 네트워킹 뿐 아니라 새로운 학습과 모색에도 적극적이었다. 애초 4차로 기획되었던 포럼이 5차까지 이어진 것은 공통의 고민을

22) 5차 활동가 포럼 참여 단체(12.3) 총 8개 단체; [강남] 강남마을넷, 숲여울기후환경넷, 이소인문심리상담센터, 강남서초녹색평론모임, 한살림남부지부 [서초] 밸류가든 [송파] 퍼스트페이지, 커뮤니티허브공간.

풀어보려는 활동가들의 지속적 요구와 모색으로 가능했다. 활동가의 참여 의지를 통해 현장에서의 필요와 어려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남권의 지역적 특징 지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현저히 낮다고 느껴며 활동가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현실은 매우 차갑다. 그렇지만 동남권 지역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잠재력과 이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위치와 영향력을 생각하면, 지역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

활동의 확산과 조직화 등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데, 동남권에서는 **공익활동이 개인과 지역에 가지는 영향력과 의의를 설득해 내는 작업부터**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이곳에서, 이것은 개별 조직이나 활동가가 해 내기 어려운 과업이다. 공공부문의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목해봐야 할 사업영역이기도 하다.

공간과 네트워킹에 대한 필요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필요는 ‘공간’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두드러지는 요구이지만, 존재감을 중시하는 지역민들의 태도나 높은 지가로 공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활동가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간과 존재감 부족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면서 활동가들을 위축시킨다. 또 하나의 의제인 ‘네트워킹’은 이런 위축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영향력과 자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요구이다.

역동성을 갖는 조직과 활동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 활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간과 네트워킹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창의적 고민이 필요하다. 동남권과 같은 지가가 높은 곳에서 현실적으로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간 제공이 가능할지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면으로 드러난 공간과 네트워킹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활동가들이 원하는 근원적 변화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해결책들을 고안해보고 지역과 조직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 ‘만남의 장’과 ‘네트워킹’의 방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움직임과 주체 기존의 시민운동 조직들은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함께 조직을 확장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움직임은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공간 실험이나 느슨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활동 중심의 조직들이 그것이다.

기존의 조직들은 다음 세대로의 연결이 쉽지 않아서, 새로운 실험들은 불충분한 자

원과 역량 때문에 고립되거나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5차례의 포럼을 통해 서로가 하는 일을 소개받고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활동가들은 고무되고 활력을 얻었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었다. 열정으로 만들어온 다양한 활동들을 지키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가들은 서로 소통하며 힘을 얻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신을 설명해낼 수 있는 학습의 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많은 조직들이 적은수의 활동가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공간실험형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필요를 함께 담담해 줄 거버넌스의 힘이 필요하다.**

V. 결론

최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입법목적을 통해 시민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중간지원조직’운영의 모델들을 통한 일련의 활동들이 그것이다. 2015년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민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인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권력과 시장의 독점에 대한 견제는 균형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NPO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8년 동북권NPO지원센터를 확장한 바, 서울시의 권역별 시민사회활성화 전략은 이러한 시민사회 성장지원의 흐름에 참으로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시민사회 기초조사는 향후 동남권의 공익활동 지원 체계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사활동이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성장 욕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동남권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980년대 민주화의 경험 속에서 지역화, 도시화의 전형적인 발전의 틀을 지닌 활동력(위례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송파 등)에서부터 개인적 욕구(의제)의 조직화(넷물아홀러홀러, 카페두잉, 플랜터스, 벨류가든 등)까지 여러 흐름이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어 흥미로웠다. 주거의 소비와 교육의 소비시장이라는 사회적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꾸준하게 나름의 방식대로 의제를 만들어 내고 ‘변화’를 조직화해내는 권역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32명의 활동가들의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혼재된 활동력을 볼 수 있었다. 10년 이상의 활동가가 31.8%이며 상근직 40.2%, 정규직 활동가도

31.8%로 나타났다. 물론 1년미만~3년미만 활동가도 37.2%에 달하고 있어 어렵지만 세대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활동가 포럼을 통해 함께 토론해 본 동남권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적인 문제로는 전통적 시민사회의 주제와 활동방식이 잘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꼽혔다. 주로 80년대에 시작된 사회변혁 운동의 주제와 이를 이끌어가는 활동양식이, 아직 꾸준히 이어져가는 곳도 있지만 단절의 위기에 처한 곳도 많다. 이는 세대차가 가져오는 관심과 행동양식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남권의 NPO 활동가들은 난관과 부딪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네트워크하고 끊임없이 변모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고(송파.강동 사례),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안적 주제 공간을 만들고 관심과 동질성을 가진 개인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활동 양식을 변모시키고 있기도 하다(공간실험 사례들). 그러나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한 만큼, 강력한 지원 없이는 권역 내에서 NPO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기존의 활동들도 건강하게 이어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단체에 시민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한 74.2%의 귀중한 의견은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틀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가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리적 활동공간 확보에 관한 것이다. 지역의 지가가 높은 만큼, NPO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활동의 기반(공간 포함)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물리적 인프라의 취약함은 시민들에게 NPO활동의 필요와 존재감을 보이는데 한계를 갖게하며 이는 시민사회영역 전반의 존재감 상실과 자신감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든 존재감과 영향력이 가장 큰 관심사인 동남권의 정서에 적절히 어필할 수 있는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권역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89.4%의 의견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연결과 협력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권역차원의 네트워크 경험이 적다는 점이 오히려 연결과 연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동남권은 개인과 동료네트워크의 문제해결력이 높아 조직화가 어려운 지역의

특성상 조직별 활동가의 수도 적기 마련이고, 지역 내.외부로의 네트워크에까지 역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 시점에 중간조직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네트워크 및 이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세대와 지역민 특성을 고려해 새롭게 시민을 만나는 방식을 배우고 실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홍보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 동남권 만의 독특한 유형으로 발견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공간실험형 조직들을 적절히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의 발견과 발전에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의 방식도 시민사회-시민사회간 네트워크를 넘어선 소절가치 지향적 민간기업-시민사회, 마을기업-시민사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시민-시민으로 제 부문간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좋은 실험이 될 것이다. 여기에 행정과의 거버넌스 뿐 만아니라 기업과의 거버넌스, 행정-기업-시민사회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한 NPO 활동의 존재가 사회의 민주주의와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라면, 이런 활동들이 적절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동남권이 가지는 존재감에 비해, 이 지역의 NPO활동이 가지는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활동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이번 기초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초/강남, 송파/강동으로 구분되는 지역민들의 태도 및 활동가들의 필요의 차이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지역의 활동가들의 사회문제 진단과 해법의 다양한 실험을 촉진하고 시민과의 연결성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의 수행자로서의 기능을 해내야 할 것이다. 동남권의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네트워크 실험이 기대되는 것은 세대간 시대간 차이와 공통점이 융합된 건강한 활동가들이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남권의 공익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이해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활동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공익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장기적인 과제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자산과 시민들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실험적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정된 지원 인프라(공간 포함)를 만드는 것보다 연도별-단계별 설계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즉, 2019년~2020년까지 첫 도입기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자치구별 네트워크 중심(허브)역할 단체 혹은 공간, 활동가 지원을 통해 공익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의 구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서초-강남-송파-강동에 각각 활동 중인 활동가 1인(혹은 단체)을 허브 활동가로 지정하고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사람과 기획단의 상시적 운영체계를 가동하여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행정적인 업무 등)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내용은 공동 혹은 자치구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법으로 실험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고, 센터 위치 등을 찾아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고(임대료 지출로 인한 소모적 예산 사용의 한계 극복), 동남권 공공성 강화가 가능한 지역과 공공자산활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2021년도 이러한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동남권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칭)를 출범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원하는 촉진 역할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동남권 공익활동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여타 다른 권역에 비해 지역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연구는 동남권 시민사회 주체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촉발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척박한 조건에서 내딛는 첫 걸음인 만큼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2019년에는 본 연구의 성과를 딛고 동남권 공익활동지원기구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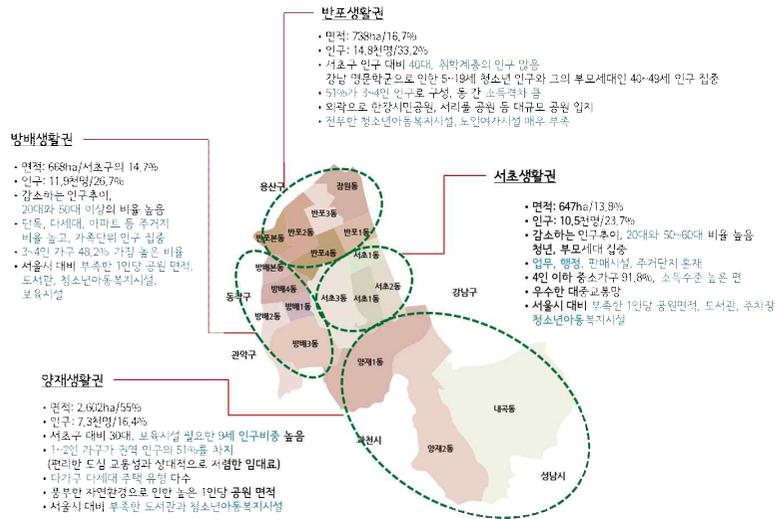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에서 그동안 동남권역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이들을 넘어 동남권역에 근거지를 둔 단체를 보다 적극 확인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된 연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목록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목록을 활용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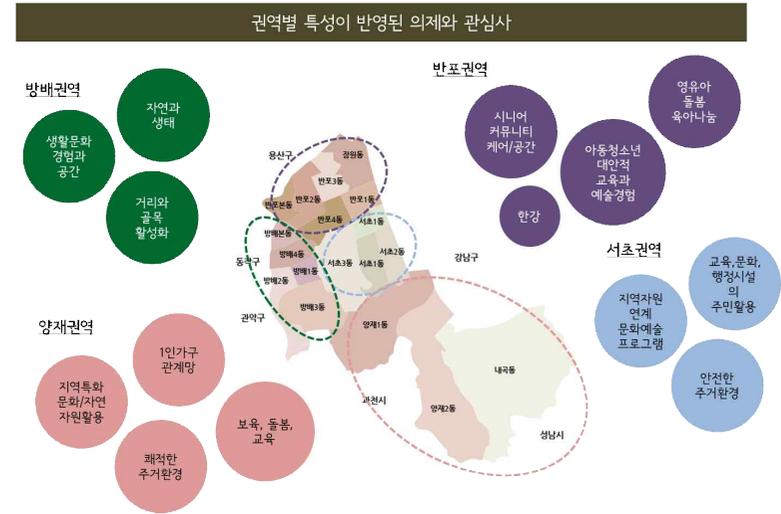
둘째, 활동의 주체인 단체들에 대한 접근을 넘어 활동의 내용인 '의제'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체들의 존재가치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동남권 단체들은 어떤 의제를 다루고 있고, 의제들은 어떻게 연결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로 풀어내는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인용한 생활권역별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활동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구체적인 의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활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서초구를 예시로 생활권역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의제를 찾아낸 내용이다.

<그림 V-1> 생활권역별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한 권역별 관심 의제 발굴 예시

서초구 생활권역별 현황 및 특성



서초구 내 생활권역에 따른 관심 의제



셋째, 시민사회단체들 외에도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영역인 사회복지, 자원봉사, 평생교육,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최근 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도시재생, 지역혁치, 주민자치 등의 시민 주도적 정책 기반 시민사회 활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과약도 필요하다.

넷째, 동남권의 기업, 공공 영역의 인프라를 확인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 개인의 공간 등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공익활동지원기구 마련의 필요성과 기초적인 요구를 확인했다면, 추후에는 공익활동지원기구의 구체적인 역할과 공간 및 운영방식, 그리고 공익활동지원기구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답론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

참고문헌

- (사)마을·(사)시민·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서울시NPO지원센터(2018), 서울시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평가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 강동구(2018),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체계 진단 결과보고서.
- 강창현(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36(2), 313-332.
- 공석기(2016), 서울 시민사회단체 역량 토크아보기: 등지형 정치기회구조와 시민행동지수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2), 135 - 176.
- 공석기·조철민(2016), 시민행동지수(HASK CAI)를 통해 본 서울지역 시민사회, 학예사.
- 김현정(2017),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이경숙(2014), 서울시 여성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상필·김봉렬·박철(2013), 서울시 풀뿌리 NGO 조사, 한국NGO학회.
- 박영선(2015),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제도연구: 시민사회조직 중심, 『시민사회와 NGO』, 제3권, 3호, pp3-40
- 변미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SDI 정책리포트 103호.
- (사)시민(2017), '어서와 NGO는 처음이지' 청소년직업가이드북 1탄.
- 서울시NPO지원센터·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2017), 2017 동북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
- 서울시민연대·서울풀시넷(2012),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서울특별시.
- 신경희(201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안현찬·조윤정(2017),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이시경(2013), 도시하천 살리기 거버넌스의 특성비교: 온천천과 양재천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145-170.
- 정민수·조병희·이성천(2007),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과 지역사회 역량, 보건행정학회지 17(4). 54-81.
- 정병순(2018),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조권중(2012), 서울시 제3섹터 지원정책 연구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조철민(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25(1). 179-212.
- 조철민(2016), 서울의 자치구 간 조건 차이에 따른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 특성: 강남·마포·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6(2). 300-333.
- 채상원(2018),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전략과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선(2002), 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 실천사례 연구: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現위례시민연대)의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통계서비스(<https://data.seoul.go.kr>).
- 2030 서울생활권계획—권역별생활권계획: 동남권(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file/sub3_10/dstrct_SE.pdf).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부록_설문지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공익활동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동남권 지역 공익 활동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동남권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 34조에 의거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응답 결과는 향후 동남권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 참여 기간: 12/3(월) - 10(월)

2018년 12월

동남권 공익활동 기초조사 연구진 일동
(대표수행기관 : 벨류가든)

I. 응답자 일반사항

* 해당 사항에 √ 표시하거나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성별	①여 ②남	2. 연령	___ 세
3. 활동지역	①강남구 ②강동구 ③서초구 ④송파구		
4. 소속단체의 법적 성격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③비영리민간단체 ④임의단체 ⑤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 기업 등) ⑥개인 활동가 ⑦기타 *복수응답 가능		
5. 소속단체의 재원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회비(후원금 포함) ②지원사업(지자체, 기업, 재단 등) ③수익, 재정 사업 ④기타()		
6. 소속단체의 활동가 인원	①1인 ②1인 초과 - 3인 이하 ③3인 초과 - 5인 이하 ④5인 초과 - 10인 이하 ⑤ 10인 초과		
7. 응답자의 공익활동 기간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3년 미만 ③3년 이상-5년 미만 ④5년 이상-10년 미만 ⑤10년 이상		
8. 근무형태	①상근직 ②반상근직 ③비상근직 ④기타		
9. 고용형태	①정규직 ②프로젝트 계약직 ③파트타임 ④기타 ()		
10. 사무공간	단독 공간 없음	① 사무공간 없음	
		② 공유공간 사용	
	단독 공간 있음	③ 자가	
		④ 전세	
		⑤ 월세	
		⑥ 기타 ()	

II. 공익활동 현황

11. 소속 단체에서 귀하의 성장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보통이다. ④높다. ⑤매우 높다.

12. 소속 단체에서 귀하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①매우 많이 한다. ②약간 지원한다. ③보통 ④거의 없다. ⑤전혀 없다.

13.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①사명 및 목표 ②단체 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성 ③전문기술(행정, 교육, 문서작성)
④기타()

14. 자기개발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비용 ②시간 ③의지·목표 ④주변환경 ⑤기타()

15. 소속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5-1. 소속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①교육 ②자조모임 ③자원봉사 ④캠페인 ⑤기타 ()

15-2. 소속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명성 부족 ②프로그램 부족 ③시민 밀착형 의제 부족 ④소통 부재 ⑤홍보 부족
⑥기타 ()

Ⅲ. 권역에 대한 질문

16. 최근 서울시는 서울을 5개 권역(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으로 나누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17.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공익활동가들과 교류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매우 많다. ②약간 많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없다. ⑤ 매우 없다.

18. 무엇이 활동가들의 교류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시간 ②비용 ③공간 ④효용감 부족 ⑤정보 부족 ⑥기타 ()

19.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 공익활동가 그리고 공익활동단체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0. 향후 동남권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부정적 ②약간 부정적 ③보통이다. ④약간 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Ⅳ.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필요 사항

21.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자원	재정(사업비/인건비)	①	②	③	④	⑤
	공간	①	②	③	④	⑤
	장비	①	②	③	④	⑤
사람(조직) 역량강화	활동가 충원	①	②	③	④	⑤
	활동가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조직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연결 (네트워크)	활동가간 네트워킹	①	②	③	④	⑤
	단체간 연대	①	②	③	④	⑤
	정부·기업과의 협력	①	②	③	④	⑤
정보·담론 연구	시민과의 연결	①	②	③	④	⑤
	정보공유	①	②	③	④	⑤
	활동을 위한 콘텐츠	①	②	③	④	⑤
	공익활동 담론(의제)	①	②	③	④	⑤
	지역 시민사회 실태조사	①	②	③	④	⑤

22. 동남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익활동가 1차 포럼 기록

서울 동남권 공익활동 기초조사 연구를 위한 지역 공익활동가 1차 모임

일시: 2018. 10. 15 14:00~17:00

장소: 벨류가든

참석자: 강남, 서초, 송파 지역 활동가 15명

모임의 목적

- * 동남권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 * 지역 현황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점검
- * 지역 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활동가들의 필요 파악

진행내용

시간	진행순서	주요내용
14:15 ~ 14:30	오프닝	모임의 배경 및 NPO센터 추진 과정 설명
14:30 ~ 15:00	참석자 소개	개인별 활동단체 및 활동 소개
15:00 ~ 15:50	동남권 지역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지역 주민의 특징 • '공익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 지역 주민이 가장 관심 있을 공익활동 분야
16:00 ~ 16:50	활동가들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 동남권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 •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6:50 ~ 17:00	마무리	추가 조사 및 다음 모임에 대한 공지

토의 내용 1: 동남권 지역에 대한 인식

<활동가들의 눈으로 본 동남권 지역민의 특징>

- 각자 3장 이내로 포스트잇에 기입 후 벽에 붙이고 자율적으로 함께 분류

Keyword:

1. 영향력, 존재감 있는걸 좋아함, 다양한 관심사, 숨은 재주, 바쁘다, SNS커뮤니케이터, 젊은 마인드 (9개)
2. 개인주의, 각자, 개인, 자기이익, 혼자, 독립된 단위, 섬 (7개)
3. 교육에 관심 많음, 교육문제, 초등 학부모, 아이, 죄수의 딜레마, 경제 (7개)

4. 부동산, 대전(대치동 전세)사람들, 철새, 경제 (4개)
5. 타인에 무관심, 무관심, 그냥 노는 엄마 (3장)
6. 가족주의, 가족 (2개)
7. 소비자, 5,60대 중장년(중산층) 여성 (2장)
8. 기타: 편안함, 따뜻한 사람들, 깨끗

<활동가들이 본 지역민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 각자 3장 이내로 포스트잇에 기입 후 벽에 붙이고 자율적으로 함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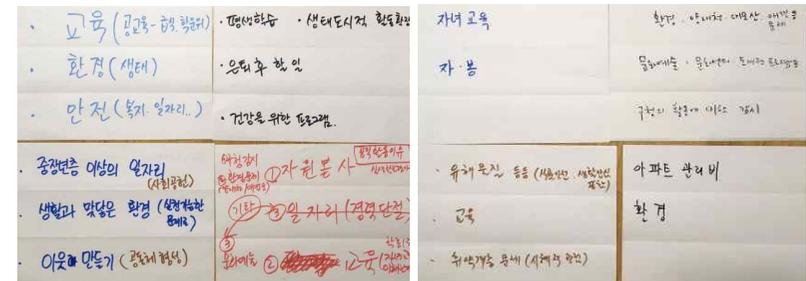


Keyword:

1.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 (18개)
불편한, 무관심, 굳이 내가?, 나랑 무슨 상관, 공짜야?, 이상한 사람.조직, 그게 왜 필요해? 생소함, 그래서?, 넌 뭐니? 얼마면 되니? 부르지는 마!
2. 중도로 분류(5개)
그게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나와는 무관한, 남이 하면 좋은 것
행정이 할 일, 정치
3. 긍정적 감정으로 분류 (8개)
이타성, 희생, 자원봉사, 봉사, 해야지~
공공근로, 좋지만 (돈으로만) 참여할게,

<활동가들이 예상하는, 지역민들이 관심 있을 '공익활동' 분야>

- 각자 A4지에 3가지씩 기입하고 테이블 별로 토의 후, 대표적인 분야 발표



환경, 먹거리	아이 교육
과, 활동 등등	안전
	서 금융(문화지역)
교육	환경 (먹거리, 봉사 등)
아이 돌봄 · 노인 돌봄	교육 (민내러, 대안)
지역 개선 (상하길 ↑) (한번)	정보공개서

Keyword:

- 1그룹: 교육 관련 관심 클 것, 안전, 세금의 쓰임
- 2그룹: 교육 관련 내용,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경력단절 여성 자원
- 3그룹: 환경에 대해 공통 의견, 퇴직자들의 사회공헌 통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익활동
- 4그룹: 교육, 마음 돌봄, 먹거리, 환경
- 5그룹: 안전, 돌봄, 교육, 정보공개, 다양성

토의 내용 2: 활동가들의 필요

<p>내 문제에 나의 개인적인 용역 이상을 만들고, 서열화된 관계(계층)가 개인주의 (사회성) 경쟁을 원하 중요한 삶의 세안 생기 활동 (정보와 연구, 평생 학습)</p> <p>1. 인식 변화 & 확대 2. 지역성 강화 유지된 (세대 양화) 관행과 양극화 양상 → 회복 이성적 합리성과 감성</p>	<p>1. 다다 익선 2. 영향력, 주위 파급력이 크다 3. 안정적인 지원이 있는 곳 필요. (직접하여 복, 복지)</p> <p>1. 노모 문제 해결 (노모진) 2. 기회가 없으면, 영향력 큰 3. 공간대 형성 (취업지원센터) 공간</p>	<p>모두 작업, 나라도 짜자. 물리적 공간이 많은 것의 가치. 유저들은 비용으로 공간 활용.</p> <p>집안지성 발휘/민중력 민중력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p> <p>1. 나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 공익활동 → 개인활동 2. 시민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기에 (일상적 활동의 생산 사회) 3. 시민의 네트워크를 형성되도록 중심그룹 (조직과 운영 운영권)</p> <p>1. 나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 공익활동 → 개인활동 2. 시민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기에 (일상적 활동의 생산 사회) 3. 시민의 네트워크를 형성되도록 중심그룹 (조직과 운영 운영권)</p>
<p>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대하면,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생활과 함께 돌보아야</p> <p>공간 + 네트워크 + 활동</p> <p>문제의 확산 (대중 + 함께) 지원의 편중 공간과 사람</p>	<p>노모진 취업지원센터 공간대면이 힘드니까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교육 (네트워킹), *형식만 있으면 아메리칸사</p> <p>강연의 비 → 문화 시민사회 회복 물리적 공간 (공간) + 인력 + 시민지원 운영</p>	<p>개개인의 모두 파수정하고 활동은 어떤 세안 (사람들, 행사)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모든 활동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가 이유가 없는 활동은 왜 해야 하는지? 필요한 것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한걸음씩, 복지기.</p> <p>지역 · 다양성 공간 (수적 양적 의미) 이후 인내와 인성 공간 네트워크 네트워킹</p>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1. 운동의 확산, 더불어 함께, 공동체 지향
2. 재미와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
3. 개개인이 모두 마음 편하고 행복을 느끼는 세상(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 만들기
4. 지역의 다양성 지켜내기 위해
5. 강남의 벽을 뚫고 공동체 활성화 위해
6. 생태도시 강남을 꿈꾸다
7. 나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 공익 활동이 곧 개인을 위한 활동
8. 집단지성 발현, 민관협력
9. 모두가 할 일, 나라도 하자
10. 인식변화와 확대 위해
11. 스스로 문제해결 (자기주도성)
12. 다다익선
13. 내 문제가 나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에 '공익활동' 지원이 필요한 이유>

1. 시민사회 취약성
2. 자력 성장이 중지된 곳 (세대 단절)
3. 공간, 임대료 상승 (수적 열세의 이유)
4. 공간이 많은 것의 기초
5. 공간 마련이 힘든 곳 → 중간 지원 조직체 부재
6. 물리적 공간이 많은 것의 기초
7. 자원의 편중
8. 특별히 필요하다기보다는 모든 곳에 필요하다. 특히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한 지역
이어서?
9. 타지역이 선망하는 지역이어서, 모델 발굴 필요
10. 공적 지원 기회가 없었고, 사회적 영향력 큼
11. 영향력, 주위 파급력이 크다.
12. 개인주의(각자도생)와 경쟁 완화, 공동체 의식의 씨앗 심기
13. 민주시민교육같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들고 싶어서
14. 시민(일상적 활동의 시민사회)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기에

<동남권 NPO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 공간과 사람
2. 공간 + 네트워크 + 홍보
3. 지역활동의 거점(네트워킹)이 필요하다. 활동가들간 교류. 힘 모으기

4. 공간제공, 네트워크
5. 물리적 토대(공간) + 연대 + 시민활동가 양성
6. 교류(네트워킹) -> 험치만 된다면 이끼이끼^^
7. 시민의 네트워크 형성되도록 촉진그룹 (촉진자, 모임, 중간지원)
8. NPO센터 촉진시킬 기능
9.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간활용
10. 공익활동가 발굴과 성장 -> 인적 허브
11. 공감대 형성 (공익활동 필요성 공유)
12. 안정되고 지속력 있는 공간 필요 (활동각에 힘 실어주기)
13. 홍보 (참여자 모으기, 관심 환기)

2018년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기초조사 연구(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 보고서

발행일 2018년 12월 3일(SNPO 2018-B-008)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